



INDEX

1면 간호대학의 새창을 열며  
- 송미순 간호대학장

2면 간호대학 소식

2009년 간호대 우수연구상  
박현애 교수의 간호정보통계 연구실

간호과학 연구소 소식

2009년도 간호대 우수교육상  
- 박영숙 교수 인터뷰

전문간호사 교육

건강보험 사례관리 자격인증 교육프로그램 위탁 운영 및 연구

가정간호·재가노인요양센터

최고간호관리자과정

6면 학교행사

서울대간호대학 국제평가  
- 미국대학 30위권

2010년도 간호대 교수 workshop

외국대학과의 교류 및 MOU 체결  
대학원 해의 유명학자 초청 여름학기강좌

나이팅게일 선서식 - 학부 3학년  
교수동정  
- 아동간호학 한경자교수 정년퇴임

간호대학 멘토링 프로그램

13동 건물 리모델링, 시뮬레이션랩  
설치

행복한 나눔  
- 홍경자, 이윤경, 김정희 동문

9면 학생활동

대학원생 Rogers 장학금 수혜  
- 정신간호 박사과정 장선주

국제기구활동을 준비하는 간호대  
07학번 권보람

경영학에서 간호학으로  
- 09학번 김현진 학생 인터뷰

동아리 탐방 - 다소니

## 간호대학의 새 창을 열며

연건캠퍼스 간호대학 앞에는 옛 경모궁의 신문인 함춘문이 변함 없이 단아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고종의 칙령으로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의 기원이 된 대한의원 간호과의 간호교육을 이곳에서 시작한 것이 1907년이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본교의 간호교육은 경모궁(함춘원) 궁터이었던 이곳 연건에서 이어져 왔습니다. 빛 바랜 간호대학 역사 사진들에서도 이 함춘문과 서울대 병원건물, 의과대학의 구건물 등 함춘동산의 사진들을 볼 수 있어서 요즘처럼 변화와 혁신을 강조하는 사회에서 간호대학이 한 곳에서 오랜 시간 그대로 있었다는 것이 새삼 신기하게 여겨집니다.

돌아보면 그 동안 간호대학이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연건캠퍼스라는 안락한 작은 공간 안에서 안주하면서 간호대학이 어떤 생각으로 교육을 하

며 어떤 연구를 하는지 이웃들에게 우리를 드러내 보이고 바라보는 분들의 생각을 듣고 소통하는 것에는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관악캠퍼스에 있는 분들이나 다른 외부인들에게는 간호대학에 대한 소식을 전할 기회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간호대학은 간호대학소식지라는 간호대학의 새 창을 내고 간호대학의 모습을 많은 분들에게 내 보이려고 합니다. 이 시도가 간호대학이 외부의 모든 분들에게 더 친근한 이웃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일이라 조심스런 마음이지만 서울대 여러 이웃들의 많은 격려와 충고를 기대합니다.



2010년 8월

간호대학장 송미순



간호대학 소식 01

### 2009년 간호대학 우수 연구상 박현애 교수의 간호정보·통계 연구실 소개

2009년도 간호대학 우수 연구상을 수상한 박현애 교수는 1987년 미네소타 대학에서 보건정보학과 보건통계학 박사학위 받은 후 1988년부터 1992년까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보건(지)소 정보체계, 응급의료정보체계, 국가보건 의료정보망 구축과 같은 국가단위 보건 의료정보체계 관련 연구를 수행하였고 1992년 간호대학에 부임한 이후에는 학부, 대학원에서 정보학, 통계, 연구방법, 도구개발 등의 강의를 하면서 보건의료 정보학 분야의 연구를 수행해 왔다.

최근 보건의료분야의 정보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정보의 공유 및 교류를 위한 의미론적 상호운용성 (semantic interoperability)의 확보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의미론적 상호운용성은 시스템간에 주고 받는 정보가 이해 가능하게 전달되는 것을 말한다.

박현애 교수의 주된 연구 관심사는 바로 보건의료분야에서 시스템간에 주고 받는 정보가 이해 가능하게 전달되는데 필요한 인프라이면서 표준인 보건의료분야 용어 및 분류체계, 이들 용어 및 분류체계의 근간이 되는 개념들의 모델 (detailed clinical model), 개념들간의 관계인 참조모델(reference model)을 개발하고, 이를 정보시스템에 구현해보고 평가하는 데 있다.

박현애 교수는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에 부임한 이후 지금까지 보건의료정보 분야의 표준화와 관련된 과제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오고 있는데 2009에 수주한 연구과제로는 보건복지부 EHR 사업단에서 개발한 임상용어사전과 임상용어사전 관리도구를 3차 의료기관에 적용하면서 평가하는 과제;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가 우리나라 병원시스

템과 병원정보시스템을 터키 방식으로 수출할 목적으로 추진 중인 디지털병원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의 의료용어 표준화 과제; 간호분야에서 수집하는 정보의 공유 및 교류를 위한 간호문제와 간호중재 내용의 온톨로지와 지식모델을 개발하여 시스템에 구현해보는 과제가 있다.

박현애 교수는 이 분야의 연구업적을 인정받아 현재 세계의료정보학회와 세계간호정보학회 부회장직을 맡고 있으며,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등의 국가표준이면서 전세계 병원정보시스템에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IHTSDO (International Health Terminology Standard Development Organization)에서 관리하고 있는 표준의료용어 체계인 SNOMED (Systematized Nomenclature Of MEDicine)와, 세계간호협의회 (International Council of Nurses)에서 개발한 표준 간호용어 체계인 ICNP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for Nursing Practice)의 자문위원을 맡

고 있다. 또한 세계표준기구에서 보건의료정보분야 표준을 제정하는 ISO/TC 215의 기술자문위원으로 전세계 보건의료정보관련 표준을 개발하는데 직접 참여하고 있다. 2010년 1월에는 지속적인 ICNP관련 연구업적을 인정받아 박현애 교수 연구실이 전세계적으로 8개 밖에 없는 ICNPR&D 센터 중 하나로 지정받았다. 박현애 교수 연구실에는 6명의 박사과정 학생, 2명의 석사후 과정생, 5명의 석사과정 학생이 연구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2009년 1월부터는 간호대학 부학장직도 맡고 있다.

하단 사진은 박현애 교수와 석·박사 학생들



간호대학 소식 02

### 간호과학 연구소 소식



서울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는 (<http://rins.snu.ac.kr>) 1995년 설립된 이래 간호지식과 이론을 개발하여 환자간호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

력하고 있다. 연구소 중심의 연구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지원하며 세계수준의 간호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교수와 대학원생의 국제학술지 논문게재와 국제학회 참석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간호과학 연구소에서는 2000년 ‘간호결과 분류체계의 최근 동향’이라는 주제로 시작으로 2009년까지 총 12회의 국내의 학술대회를 개최하였고 특히 2009년에는 ‘International Review of Nursing Education: A Leap for the Future’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외에도 세계적인 흐름인 다학제간 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최근에는 해외 자매 결연 대학과의 국제 공동 연구 활동을 계획, 지원하고 있으며 대학원생들의 논문작성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교수 및 학생의 연구결과 공유 및 확산을 위해 금요세미나 및 하계, 동

계 방학 통계 및 글쓰기 특강을 실시하고 있다.

2003년부터 시작된 금요세미나는 외부 인사 또는 교내 교수 및 대학원생들을 연자로 모시고 월 3회 주제별로 진행되고 있으며 2009년까지 법, 철학 등 인문사회 분야부터 자연과학 및 최신연구에 이르는 다양한 주제로 총 84회 개최되었다. 2010년 1학기에도 총 7회 실시되었으며 2학기 금요세미나 및 방학특강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간호과학 연구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기재되어 있다.

또한 본 연구소는 간호기초이론개발부, 간호중재연구부, 간호정책정보연구부 등 3개의 연구부서와 학술부, 출판홍보부, 연구지원부 3개의 지원부서, 그리고 건강 교육센터로 구성되어있다. 각 부에서 연구를 통해 창출된 지식은 연구소 내 건강교육센터에서 현장실무 담당

자 교육과 대민건강 사업을 통해 이를 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건강교육센터는 본 대학의 교수진이 개발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반 시민이나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민교육과 단기전문지도자(교육/임상)훈련을 실시하는 곳으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48가지의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2009년 Denver II 발달검사 교육이수과정 개최를 비롯하여 현재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 교육훈련(FMTP)를 시행 중에 있다.

본 연구소는 앞으로 국내 간호계의 연구활동을 선도할 뿐 아니라 세계적인 간호연구의 산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좌측 사진은 2009년 간호과학연구소 주최 국제학술대회 모습.

## 간호대학 소식 03

## 2009년 간호대학 우수 교육상 박영숙 교수 인터뷰



지난 2009년 간호대 우수교육상을 수상하신 박영숙 교수(출산기 가족간호학 전공) 08학번 고은영 학생이 만나 교수님의 교육 철학과 비전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고은영 학생(이하 고은영):** 안녕하세요? 우선 2009년도 우수교육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교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교육방식 혹은 방침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박영숙 교수(이하 박영숙):** 관찰보다는 경험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습을 하는 경우, 학생들이 최대한 경험을 많이 해볼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직접 시켜보는 일이 많아요. 학생들은 혹시라도 환자의 안전에 누가 될까 걱정하는데, 그렇게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수업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은 수업 시간 외에도 공부하는 것을 귀찮아하지 말고, 적극성을 가지고 학습에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간호라는 과목은 언제 어디에서 중요한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기회가 될 때 관찰하려는 수고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기 바랍니다.

**고은영:** 학생들과의 상호작용 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박영숙:** 벌써 손주들이 셋인 할머니가 되다 보니, 그리고 교수생활을 한 시간이 길어진 만큼 학생들을 이해하는 마음의 폭이 넓어졌어요. 젊은 교수시절에는 학생들의 실수와 학습내용을 모른다는 것을 용납하기 힘들었다면 지금은 '모를 수도 있겠구나'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학생들을 다그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런 면이 학생들에게 수업시간,

실습시간에도 부담이 없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학생들에게 교수라고 어려워하지 말고 질문하며 평소에도 고민거리가 있다면 찾아오라고 독려하지만 학생들이 교수 어려워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웃음).

**고은영:** 학생들이 실습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무엇을 달성하기 바라시나요?

**박영숙:** 요즘에는 학생들이 혹시나 실수를 할까 봐 적극적으로 실습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학생간호사라고 해서 눈으로 보는 것으로 그치려는 경우가 있는데 실습 안에서 간호사가 되었을 때 필요한 기술을 많이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간호사가 시키는 것만 하려 하지 말고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이나 간호과정이 있다면 직접 해볼 것을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험과 눈으로 본 것에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위해 지금의 소극적인 마인드를 적극적인 자세로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간호사는 단지 조인자일 뿐 바로 학생 자신이 주류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고은영:** 간호교육에 대한 교수님의 비전을 듣고 싶습니다.

**박영숙:** 앞으로 제가 간호를 교육할 수 있는 기간이 2년 남짓 남았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간호학이라는 것은 실습만 충실히 해도 강의 내용은 더불어 온다고 생각합니다. 실습을 체계적으로 수행한다면 강의가 필요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출산기 간호학을 듣는 학생들에게 적용할 실습 방법으로 산과 team based-learning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case study를 학생들이 개인적인 공부로 끝내지 않고, 팀을 이루어 토론 하면서 서로의 의견 공유를 함으로써 학습의 깊이를 더한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은영:** 간호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무엇입니까?

**박영숙:** 간호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간호를 공부했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환자에게 설명해 줄 수 있을 만큼 공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환자 상태 전반에 대해 파악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기초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혹, 의사의 오더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있는데 닥터의 오더는 주문서나 다름없어요. 우리는 그 오더가 합당한지를 판별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검사의 내용과 결과를 평가할 수 있을 만큼의 약리, 병리 기전을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어지는 공부에만 매달리지 말고 능동적인 공부를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구체적인 내용으로 간호진단의 틀에 매달리는 학생들이 있는데, 간호진단은 하나의 수단이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간호진단이라는 것은 환자의 상태를 보자마자 내려져야 하는 것이며 결코 특정 단어나 문장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연성 있는 간호진단을 내리기 위해 고민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죠. 그리고 간호진단이라는 것은 환자 개개인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그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다양하게 내려져야 하는데 요즘 학생들은 너무 틀에 박힌 간호진단 밖에 생각

해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환자의 상태를 본 후 그 환자에게 가장 시급한 것 외에도 그 환자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간호내용을 연구하다 보면 독창적인 간호를 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고은영:** 마지막으로 인생 선배로서 학생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박영숙:** 요즘 학생들은 경쟁적이고 이기적인 면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행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면 속에 존재하는 행복을 깨워서 남이 주는 행복만을 바라는 자세를 바꿔 주었으면 합니다. "행복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으면 좋겠어요"이 말 안에는 인생에서 가정을 꾸리는 행복을, 그리고 훌륭한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 결국 행복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달라는 소박한 희망이 담겨있는 말이에요. 치열한 삶을 살아가느라, 특히 여학생들은 결혼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한말의 의미를 깊이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고은영:** 요즘 어린 손주들을 돌보는 시간들이 너무 소중한 행복하다는 교수님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시질 않았다. 간호대 교육상을 수상하신, 그리고 멋진 교육철학을 가진 교수님이라는 직업과는 다르게 평범한 할머니, 박영숙 교수님의 인간적인 모습 또한 엿볼 수 있었다. 교수님과 함께할 내년 출산기 간호학 수업을 기대하며, 긴 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간호대학 소식 04

### 전문간호사 교육

서울대 간호대학은 2005년도에 석사과정에 전문간호사 과정을 개설하여 4개 분야에 전문간호사를 양성하고 있다. 전문간호사에 대해서는 아직 생소하게 느끼는 사람도 많지만 이 과정이 생긴 가장 큰 이유는 간호학이 실무 학문이기 때문에 이론과 함께 실무가 발전하려면 대학원과정에서 훈련된 실무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현재 서울대학교 전문간호사 과정에는 노인, 정신, 중양, 중환자 등 네 개 분야가 운영되고 있다.

전문간호사과정에 입학하려면 전문분야의 임상경력이 3년 이상 있어야 하고 이 과정의 교과과정은 각 전문분야의 전문간호사별 교과과정의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실습이 10학점 이상 포함되어 있고 총 이수 학점으로 39~40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또한 일반 석사과정처럼 논문 자격시험과 논문심사에도 통과하여야 하므로 학생들로서는 일반 석사과정보다 훨씬 더 어려운 과정이라서 졸업에는 보통 3년 이상이 소요되는데 현재까지 총 5명의 전문간호사가 졸업하였다. 현재 이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과 수료생의 수를 합치면 40여명이 되어 앞으로는 많은 졸업생의 배출이 기대된다. 이 과정을 졸업하는 학생들은 간호평가원에서 시행하는 전문간호사 시험을 거쳐서 분야별 전문간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하게 된다.

우리나라에 전문간호사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진출분야가 많지 않다. 그러나 이 제도의 시행이 40년 이상 된 미국의 경우를 보면 병실이나 외래에서 일차검진을 하거나 중환자분야에서 상급실무를 시행하거나, 요양원 등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간호전문가로서의 위치가 확고하다. 미국에서 시행된 연구들에서는 이전에 의사들이 하던 많은 일을 전문간호사가 대체하는 것이 비용 효율적이고 환자의 만족도도 높다는 연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문간호사 제도가 더욱 활성화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한국에서도 전문간호사 활동이 활발하여지고 역할에 대한 평가가 나오게 되면 전문간호사는 건강체계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력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생각된다.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은 전문간호사 과정을 통하여 이론뿐만 아니라 간호 실무에서도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인재를 양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단 사진은 전문 간호사 과정 대학원생의 환자 인터뷰 장면



간호대학 소식 05

### 건강보험사례관리 자격인증 교육프로그램 위탁 운영 및 연구

책임연구자 : 윤순녕 교수, 공동연구자 : 김진현 교수 외 6인 / 연구기간 : 2007~2010

이 과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례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강관리사를 대상으로 체계적 교육 및 훈련을 위해 본 대학이 수탁하게 되었다. 이 과정은 크게 교육·훈련과 연구로 나뉘어져 있다. 교육·훈련과정은 사례관리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이며 연구과제는 교육효과 평가에 관한 연구이다.

사례관리사업은 건강보험가입자의 건강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의료이용을 안내, 지도, 교육하며 필요 시 지역사회 자원으로 연계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질병 및 건강관리를 지향하면서 합리적 의료 이용으로 의료비 절감 효과를 기대하는 사업이다.

본 대학에서 2007년도에 건강관리사 1급 자격과정과 보수교육과정을 개발하였고 2급 건강관리사 보수교육과정 I, II와 웹교육을 개발하였다. 또한 매년 건강관리사 1급(63시간), 2급(100시간)과정과 3개의 보수교육과정(20~30시간) 중 4~5개 과정을 열고 있다. 2007~2009까지 1급, 2급 건강관리사 164명을 배출하였고, 45명이 보수교육을 이수 하였으며 2008년에는 웹 교육개발 후 1,449명이 수강하였다.

하단 사진은 보수교육과정 강의를 듣고 있는 수강생들

이연구과제에서는 2개의 자격과정과 3개 보수교육과정 이수 후 교육생들의 건강관리업무능력이 향상되었는지, 6개월 후에는 현장업무능력이 향상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한다. 그 결과를 자격과정과 보수교육과정에 반영(피드백)하여 1, 2급 건강관리사자격·보수과정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 있다.

사례관리는 미국의 관리로 전략의 하나로 1990년대 제한된 비용 안에서 대상자의 요구충족에 맞도록 의료자원을 조정하는 효율적 관리방법이다. 우리나라도 2000년도 이후 의약분업실시, 노령화, 만성질환증가로 인한 의료이용의 증가, 비합리적 의료행태 등으로 인한 의료비의 지속적 증가로 건강보험재정이 압박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은 2003년부터 간호사를 채용하여 사업을 실시하였고 점차 일반직원이 배치되면서 교육을 통해 건강관리업무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본 대학이 이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 평가,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국가적으로 합리적 의료이용과 의료서비스와 자원조정에 필요한 인력교육에 기여하고 있으며 향후 사례관리사자격교육과정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간호대학 소식 06

### 가정간호·재가노인요양간호센터

간호대학에는 간호과학연구소 부설 가정간호·재가노인 요양센터가 있다. 2003년에 서울시 가정간호사업 위탁기관으로 시범가정간호사업을 시작하여 운영하여 오다가 장기노인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자 2008년 10월 15일 가정간호·재가노인요양간호센터로 확대 운영하게 되었다.

사업의 목적은 장기노인요양보험법에 근거하여 지금까지 가족영역에 맡겨져 왔던 고령, 치매, 중풍 등 장기 간병,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사회적 차원의 직접적 도움을 제공하고, 선택권이 부여된 이용자에게 질적으로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복지 서비스의 모델이 되도록 하는 데 있다. 본 센터의 기능은 가정간호 및 대지역 주민요양서비스(직접 서비스)-방문간호, 방문요양, 방문목욕서비스와 대지역 주민상담 및 교육이다.

조직은 센터장을 포함한 가정전문간호사 4인, 방문간호사 1인 및 다수의 요

양 보호사로 이루어지며,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간호대학 교수들로 구성된다.

예산은 서울시 보건소에서 지원되는 의료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의 재가노인요양보험 비용과 본인 일부 부담금으로 충당하여 운영된다.

현 센터장은 간호대학 박성애 교수이며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총 180명의 환자에게 3,450회의 가정간호가 제공되었다. 또한 재가노인요양간호센터가 인가된 2008년 10월부터 2009년 말까지 월평균 60회의 방문간호, 115회의 방문요양, 7.2회의 방문목욕이 제공되어 매년 가정간호 및 방문간호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센터는 다음과 같은 차별화된 특성을 통해 가정간호사 및 방문간호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가정간호 서비스의 질을 관리하는 시범사업소로 거듭나 저소득층 재가 노인환자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의료 형평성 확대에 기여하고자 한다.

- PDA(개인휴대단말기)를 이용하여 가정간호의 통합적인 솔루션 구현
  - 신속한 정보교환 및 질 높은 가정 간호서비스제공
  - 현장에서 양질의 가정간호 기록수행
  -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통합 자료관리
  - 효과적인 가정간호 데이터베이스 구축
  - 웹사이트에서 의료 및 가정간호 상담 서비스제공
- ☎ 02-765-2261, 02-740-8464



간호대학 소식 07

### 최고간호관리자과정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최고간호관리자과정(<http://anmp.snu.ac.kr>)은 간호조직의 최고관리자들을 주요 대상으로 국내외 보건의료산업의 현황과 전망 및 각종 시책 등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도모함으로써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는 글로벌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비영리 목적을 가지고 있다. 2002년 12월 공개강좌 개설 승인을 득하여 2003년 고급간호관리자과정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어 국내 최초의 고급간호관리자 양성교육과정이 되었다. 또한 2005년 최고간호관리자과정으로 개칭하였으며, 2004년을 제외하고 매년 개설되어 2010년 현재 제 7기 과정이 운영되고 있으며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총 143명이 본 과정을 수료하였다.

지원자격은 간호관리자들을 주 대상으로 지원자격은 전국 2차 의료기관 이상의 수간호사 이상 간호관리자, 보건소 또는 기타 의료관련 기관의 간호관리자, 간호대학 간호관리학 전공교수 등이다.

본 과정은 매주 금요일 야간에 4시간씩 총 6개월간의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대학교,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 등에서 활동하는 보건의료정책 전문가들이 최근 보건의료계의 현안을 중심으로 강의를 하고 있다. 또한 국내 우수 병원의 간호조직관리 실습은 물론 미국 메릴랜드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보훈병원, 지역사회 병원, 보건소, 간호대학 등 다양한 기관을 방문 견학함으로써 해외의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견문과 지식도 확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리더십교육과 커뮤니케이션 및 이미지 메이킹 교육도 실시함으로써 간호관리자로서의 역량을 갖추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육과정을 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09년 6월에는 8박9일 일정으로 미국메릴랜드 대학교 간호대학 및 부속병원에 대한 해외연수가 있었으며 2009년 3월과 8월 2회에 걸쳐 간호관리자 역할의 발전방향에 대한 워크샵이 개최되었다.



하단 사진은 2009년 제 6기 수료식.



학교행사 01

## 서울대간호대학 국제평가-미국대학 30위권

### 서울대간호대학 국제평가 -미국대학 30위권

간호대학은 간호교육기관 중 국내 최초로 2009년 10월에 해외 저명 석학들로 이루어진 평가단으로부터 국제평가를 위한 현장 실사를 받았다. 간호대학 국제평가는 2007년 간호교육 100주년을 맞으며 기화한 교육제도의 혁신 세부사업의 하나로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이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평가 받고 세계수준의 평가자들이 충고하는 내용을 향후 간호대학 발전 방향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번 평가에는 미국 Rhode Island University의 간호대 학장을 역임한 Hesook Suzie Kim 교수를 단장으로 워싱턴 대학의 Nancy Woods 교수, 미시간 대학의 Shake Ketefian 교수, 뉴욕 페이스 대학의 Harriet Feldman 교수, 대만국립대학의 Lian-Hua Huang 교수 등 간호교육, 연구, 행정분야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다년간의 간호교육인증 및 평가에 참여 경험에 있는 5명의 국제석학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하였다. 이번 국제평가에는 대부분의 미국대학들이 간호교육기관으로 인증을 받을 때 적용하는 미국간호교육연맹 인정평가위원회(National League for Nursing Accrediting Commission)에서 개발한 NLNAC 평가기준을 활용하였다.

NLNAC 평가기준은 미션/행정; 교직원; 학생, 교과과정, 자원, 교육성과 등 크게 6개 영역에 42개 세부 평가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국제화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국제교류 영역에 세 개의 세부 평가기준을 별도로 추가하여 평가에 활용하였다.

이번 평가를 위해 간호대학에서는 전임 윤순영 학장 임기 중에 박현애 현 부학장을 위원장으로 간호대학 교수 5인 및 4명의 조교로 구성된 국제평가 TFT를 만들어 지난 2년간 간호대학의 교과과정 및 교육성과, 학생서비스, 행정, 재정, 시설, 교수, 연구, 국제 교류 등을 내용을 NLNAC 평가기준에 맞추어 자체 평가한 약 520쪽에 달하는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시설 확충, 서비스 개선은 물론 교과과정 개선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국제석학평가위원들은 우리 대학에서 준비한 자체평가보고서를 서면으로 검토한 후 이틀간 진행된 현장방문 실사에서는 자체평가보고서를 집필한 교수들과의 면담뿐 아니라 보고서 집필에 참여하지 않은 교수들과의 면담, 시설 방문 등을 통해 자체평가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평가결과 국제석학평가단은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의 교과과정과 교육성과, 교수의 연구 업적, 학생 서비스, 시설 및 재정 부분에 있어서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앞으로 국제화 시

대에 필요한 교과과정의 확대와 타 학문과의 연계를 통한 연구의 활성화를 권고하였다.

국제석학평가단은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의 간호교육 수준이 미국 내 600여 개 대학과 비교해볼 때 상위 30위 수준이라고 평가하였다.

간호대학에서는 이번 국제평가결과에서 지적 받은 영역을 보완, 개선하여 향

후 세계 10대 명문 간호교육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 평가를 위해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서울대학교 이장무 총장님과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하단 사진은 2009년 국제평가 평가위원 및 간호대 교수진.

영역	평점 (5점 만점)
1. 목적, 행정능력	4.8
2. 교수	4.7
3. 학생	5.0
4. 교과과정 : 학부	4.8
대학원	4.4
5. 자원	5.0
6. 성과	4.8
7. 국제교류	4.0

[평가 영역별 평균 점수]



학교행사 02

## 2010년도 간호대 교수 Workshop



2010년 2월 8일~9일, 4월 30일~5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2010년 간호대 교수 동계 및 하계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간호대 교수 및 조교 20여명이 참석하여 “간호대학 국제평가 후속 조치 및 교육 내실화를 위한 방안” 및 “입학사정관제 시행방안 및 대학 법인화에 따른 간호대학 대응방안”을 주제로 심도 있는 토의를 하였다.

College of Nur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학교행사 03

### 외국대학과의 교류 및 MOU 체결

2009년 12월 18일 Health Science University of Mongolia, School of Nursing 과 본교 간호대학이 국제교류 협약을 체결하였다. 곧이어 2010년 3월 9일~12일에 걸쳐 관련 교수진 12명이 본교를 방문하였다.

또한 2010년 6월 7일 Mahidol University of Thailand, 2010년 6월 22일 University of Minnesota 과 국제교

류를 체결하였고 Mahidol University of Thailand 대학교수 및 병원 관계자 30명 및 University of Minnesota 학장단이 본교를 방문하였다.

방문단은 본교 국제교류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교육 및 연구 관련 Orientation에 참석하였고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학부 학생의 실습 현장 견학 및 대학원 수업의 참관을

통해 본교의 체계적인 이론과 실습 교육을 간접적으로 체험하였다.

본교는 이 외에도 일본 Tokyo University, Oita University, 미국의 University of Wisconsin, University of Michigan, University of Maryland, University of Cincinnati, 중국의 Peking University, Yanbian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대만의

Yang-Ming University 등과 국제교류를 맺고 있다.

하단 사진은 좌로부터 Health Science University of Mongolia, School of Nursing 학장의 본교방문, Mahidol University 교수방문, Minnesota University Connie White Delaney 간호대학장의 본교 방문.



학교행사 04

### 대학원 해외 유명학자 초청 여름학기강좌

2010년 간호대학 여름 학기 강의로 해외 유명교수 초청강좌가 열렸다.

강좌명은 '간호이론개발'이었고 3학점 강의를 집중강의로 운영하여 6월 21일~29일까지 이루어졌다. 강의는 Eun-Ok Im 박사가 맡았는데 Im 교수는 서울대 간호대학에서 1989년에 학사과정 졸업 후 미국 University of San Francisco 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University



of Texas-Austin 간호대학의 교수이며 La Quinta Motor Inns. Inc. Centennial professor로 간호이론 분야에 국제적으로 알려진 교수이기도 하다.

해외유명교수 초청강의는 올해 처음 시도되었는데 수강생이 많지는 않았지만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고 강의 평가도 좋았다.

학생들은 미국의 이론개발 흐름을 직

접적으로 접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평이 많았다. Im 교수도 이번 강의가 일정 조정이 어렵기는 했지만 서울대학교의 우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라 보람있고 즐거웠다고 소감을 말하였다.

사진은 수강생들과 임은옥교수(뒷줄 좌측에서 5번째), 송미순학장과의 기념 촬영.

학교행사 05

### 나이팅게일 선서식 학부 3학년

2010년 3월 2일 간호대 강당에서 제 50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이 열렸다. 나이팅게일 선서식은 근대간호의 기초를 설립한 Florence Nightingale의 정신을 기념하여 후대인들이 만든 선서이며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간호교육기관에서 졸업 혹은 임상 실습 전에 시행하고 있다.

촛불점화와 나이팅게일 선서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본교 김하석 특임부총장, 성상

철 병원장, 김명애 간호부장, 임정기 의과대학장, 정필훈 치과대학장, 강태진 공과대학장을 비롯하여 학부모와 동문선배들이 함께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이날 선서식은 실습을 앞둔 간호학과 3학년 학생이 선배로부터 촛불을 이어 받아 간호전문직의 전통을 선배로부터 전달 받으며, 자신을 회생하여 주위를 밝혀주는 촛불과 같은 간호인으로서의 삶을 살 것을 참

석자앞에서 엄숙히 선서하였다.

하단 사진은 선배로부터 촛불을 이어 받는 학부 3학년 학생들.



## 학교행사 06

## 교수동정 아동간호학 한경자교수 정년퇴임

지난 2010년 2월 28일 아동간호학 한경자 교수의 명예로운 교수정년 퇴임식이 거행되었다. 한경자 교수는 1976년부터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수준 높은 연구와 더불어 수많은 후학을 양성하고 가르치는데 매진하였다. 한교수는 대한모자 간호학회

장, 부모-자녀 건강학회장, 가정간호학회장을 역임했고 본교 간호대학 초대 학장보, 학과장, 간호과학연구소장을 역임하며 간호학 연구에 대한 깊은 열정을 보여왔다. 또한 간호중재-이론과 실무적용, 아동간호중재, 한국형 Denver II 검사지침서를 비롯한 다수의 저서

를 출판하였고 Home-based Nursing Intervention과 Mothering Program을 개발하여 학술지와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함으로써 모아상호작용, 아동간호중재법에 큰 업적을 남겼다.

우측 사진은 한경자 교수(가운데)와 지도학생들.



## 학교행사 07

간호대학 멘토링 프로그램 SNU-NMP  
(Nursing Mentoring Program)

2009년 6월에 서울대 간호대학에서는 간호계에서는 국내 처음으로 멘토-멘티 결연식이 있었다. 서울대학교 송미순 간호대학 학장과 홍경자 간호대학 동창회장의 공동 주최로 시작된 멘토링 프로그램에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학부 재학생 30명과 졸업생 30명이 참여하였다. 또한 2010년 6월 15일 제2회 멘토-멘티결연식이 시행되어 학부 재학생 20여명과 졸업생 20여명이 멘토와 멘티로 이어졌다.

멘토에 참여한 동문은 이윤경 동문(69졸업 충무병원 행정부원장), 이에주 동문(69졸업 국회의원), 김명애 동문(서울대병원 간호부장)을 비롯하여 국내 최고 병원의 임상전문가, 간호행정가, 병원 경영자, 대학 교수, 정치가들로 멘티인 후배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진로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자가 될 것을 약속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에 입학한 우수한 학생들이 간호계의 리더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학교와 동창회가 지원하는 구조적인 틀"로서 서울대 간호대학의 성취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하는 견인차가 될 것이다.

하단 사진은 제 2회 멘토-멘티 결연식.



## 학교행사 08

## 13동 건물 리모델링, 시뮬레이션랩 설치

서울대 간호대는 2008년에 천연물연구소의 일부였던 연건캠퍼스 13동, 총440평을 이관 받았다. 2009년에는 건물 3층만 리모델링하여 우선 이 건물의 3층에 OSCE(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Room 4개실을 설치하였다. OSCE Room은 모의환자에게 간호를 제공하는 연습을 할 수 있는 시설로서 통제실 CCTV를 통해 각 OSCE Room에서의 간호제공 과정을 관찰, 녹화할 수 있고 이를 학생의 학습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컴퓨터실이 있던 신관 3층에는 숙원이었던 학생실습용 Simulation Lab이 설치되었다. Simulation Lab에서는 응급상황, 분만 등의 과정을 Simulator를 이용해 경험하며 실습할 수 있도록 장비를 갖추어 학생들은 OSCE Room과 Simulation Lab을 통해 보다 실제적이고 전문화된 간호를 가상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 간호대학 서은영 교수를 중심으로 Simulation Lab에 활용할 Protocol 개발 사업이 현재 진행중이다. 또한 13동의 나머지 1층, 2층, 4층의 리모델링 예산도 확보되어 올해 안에 간호대학의 공간 사정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예정이다.

하단 사진은 Simulation Lab에서 실습하고 있는 학생들.



학교행사 09

### 행복한 나눔-홍경자, 이윤경, 김정희 동문

지난 2009년 11월과 12월 우리대학에 거액의 발전기금을 기부한 이윤경 동문(69년 졸업)과 홍경자 동문(66년 졸업)의 부조제막식이 있었고, 2010년 6월 15일에는 김정희 동문(55년 졸업)의 부조제막식이 있었다. 이윤경 동문은 동창회 장학기금과 합쳐 1억원이 넘는 액수를 기부하였고 홍경자 동문 역시 “간호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데 의미 있게 쓰이길 바란다”며 꾸준히 저축해 온 1억원의 장학기금을 전달했다.

김정희 동문은 오랜 기간 보건소에 근무하며 지역사회 간호에 헌신하였고 퇴직하면서 발전기금을 모으기 시작하여 7년 전에 5천만원이 되었고 이것에 추가로 적립을 하여 올 4월 1억원이 모아져 기부를 결심하게 되었다.

동문들이 기부한 장학금은 그분들의 이름을 가진 장학금으로 간호대학 학생을 위해 쓰이게 된다.

하단 사진은 차례로 홍경자(왼쪽에서 3번째), 이윤경(왼쪽에서 4번째)동문 부조제막식과 김정희(우측사진, 왼쪽에서 두번째) 동문 부조제막식.



학생활동 01

### 대학원생 Rogers 장학금 수혜-정신간호 박사과정 장선주

현재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장선주 학생의 박사논문 “명상 프로그램이 유방암 환자의 불안, 우울, 삶의 질 및 파워에 미치는 효과” 로 로저스 장학금을 수혜받았다.

장선주 학생은 로저스의 인간과학이론을 배경이론으로 채택한 연구주체가 독창적이고 연구설계가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아 2009년 4월 장학금 수혜자로 선정되었다.



학생활동 02

### 국제기구활동을 준비하는 간호대 07학번 권보람 학생



무뎠던 여름이 지나고 새로운 2학기가 시작되었다. 조용하던 연컨캠퍼스가 다시 시끌시끌한 가운데 국제기구활동을 준비하고 있는 간호대 07학번 권보람 학생을 간호대 학생회장 최진아 학생이 만나 인터뷰 하였다.

**최진아 학생 (이하 최진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현재 국제기구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계기가 궁금합니다.

**권보람 학생(이하 권보람):** 저는 입학하면서 2학년을 마칠 때까지 학업에만 집중을 했었어요. 하지만 2학년이 끝나갈 무렵에 내가 이렇게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만 하다가 졸업을 하게 되면, 과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사회에 나가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로만 꿈이 있다, 이렇게 살고 싶다고 하면서 그 분야의 현실이 어떤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를 모른 채 이상만 운운하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휴학을 하고 국제기구에서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최진아:** 신념이나 살고 싶은 인생의 방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권보람:** 제가 가고자 하는 삶의 방향의 키워드는 “국제무대에서의 인재”, “의료와 공중보건” 그리고 “만인을 위한 직업”입니다. 임상에서 일하는 것뿐 아니라, 저는 가능한 한 의료 분야를 확대 적용하여 공중보건과 국제 협력 쪽에서 일하고 싶었어요. 궁극적으로는 저의 지식과 능력이 만인을 위해서 쓰이길 원했고, 국제적으로 발로 뛰며 활동하고 싶었구요. 한국에 정제되어 일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변화시키는 일이 좋았어요. 따라서 제 신념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나는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입니다.

**최진아:** 그렇다면 그 신념을 위해 지

금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권보람:** 첫 번째로 월드비전 해외사업부 국제개발팀 아프리카 담당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월드비전 해외사업부 국제개발팀에 지원을 하였고, 합격을 하여서 아프리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월드비전에서 아프리카 관련 사업 제안서나 보고서 등을 번역, 정리하고, 아프리카에 있는 여러 사업장 관련 회의에 참석하기도 해요. 또한 여러 워크숍이나 강의에 들어가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기도 하구요.  
두 번째로 UN재단 국제 캠페인 “nets go” supporters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UN재단이 NBA, 축구협회 등의 후원을 받아 하고 있던 캠페인이

“nothing but nets”라는 캠페인으로 말라리아로 죽어가는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해 모기장을 후원하는 캠페인이예요. 아프리카에는 하루에 말라리아로 죽어 가는 아이들이 3000명이예요.

9.11테러의 희생자가 3000명인 것을 생각하면, 매일매일 9.11 테러가 일어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모기장입니다. 모기장 하나에 한 가족이 들어가서 잘 경우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률이 한자리수로 떨어진다고 하고, 더 놀라운 점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모기장 하나의 가격이 우리 나라 돈으로 만원도 안 된다고 하니 너무나 획기적인 것 아닌가요? UN재단이 살충 처리된 모기장을 아프리카로 보내기 위해 필요한 기부금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 캠페인을 이번엔 한국에서 “net's go”라는 이름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9월에 있을 UN정기 총회에 목표 조달금을 전달 할 수 있도록 supporters들은 캠페인을 잘 진행하고 계획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백신개발 국제기구 세계본부 IVI 미션 빌더 Youth messenger

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International Vaccine Institute(국제백신연구소, 이하 IVI) Mission Builder youth messenger 2010(이하 YM)으로 선발되어 활동하게 되었지요. 국제 백신 연구소는 UN 주도하에 설립하여, UN, WHO 등 국제 기구와 협력적 관계에 있는 백신 개발 세계 기구로, 본부가 대한민국에 있는 유일한 기구입니다. IVI가 하는 일은 세계 각국의 과학자들, 의사들을 중심으로 전염병에 관해 연구를 하여 백신 개발법을 연구하고, 백신을 생산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그 기술을 개발도상국에 저렴한 값이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개발도상국 국민들의 안녕을 위해서 IVI가 기술을 양도하면, 개발도상국에서는 그 기술을 이용하여 백신을 생산해 내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IVI는 기술을 연구하는 과학자나 의사들, 그 기술이 안전한 것인지 사전 조사하고 검토하는 research team, 안전하다고 판단된 기술을 개발도상국에게 교육시키는 교육 팀, 안전하면서도 과학적인 백신 연구를 위한 기금을 모으는 fundraising team 등이 있어요. 이런 IVI 안에서 저는 여러 research를 하거나 관련 news

clipping, 번역도 하고 있고, YM 자체적으로 모여서 IVI를 홍보하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 축제나 IVI 행사에 참석하여 저희가 자발적으로 고안해 낸 행사 활동을 계획하기도 하고 있어요. 요즘은 대중매체가 많은 영향을 좌우하니까 UCC 제작도 하고 있구요.

**최진아**: 현재 휴학 중이신데 남들보다 뒤쳐진대거나 혹은 취업 때문에 걱정된대거나 그런 점은 없으신지요?

**권보람**: (웃음) 휴학을 통해 경험하고 있는 많은 일들을 통해 제 꿈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간 기분이에요. 물론, 아

직은 출발단계이기 때문에 너무나 부족하고 미미하지만, 저는 이번 휴학을 하면서 그 기초를 다지는 단계라고 생각해요. 내년엔 복학을 해서 다시 학업에 열중하게 되더라도, 제가 이번 해에 배운, 그리고 배우게 될 많은 가치들을 마음에 잘 새기고 초심을 잃지 않고 꿈을 향해 달려 나가고 싶습니다.

**최진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호학도로서 멋진 꿈을 꼭 이루시길 지원하겠습니다.



## 학생활동 03

### 경영학에서 간호학으로-09학번 김현진 학생 인터뷰



간호대 3학년 강의실에 흰칠한 남학생이 눈에 띈다. 이 학생은 어떻게 간호대를 오게 되었으며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을까? 간호대 05학번 오상준 학생이 김현진 학생을 만나 간호를 선택하게 된 계기와 간호대 학생생활, 비전 등에 대해 인터뷰 하였다.

**오상준 학생(이하 오상준)**: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전에 다른 전공을 공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전 전공과 다른 간호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김현진 학생(이하 김현진)**: 저는 학부 시절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여느 대학생이 그렇듯 나도 졸업을 앞두고 진로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구요. 사실 졸업을 코앞에 두고 고민하는 것이 많이 늦기도 하였지만, 대학교 시절 교환학생, 외교부 프로그램, 해외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더 큰 고민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많은 회사에 취업 문을 두

드리보기도, 더 하고 싶은 공부를 찾아 보기도 한 끝에 결국 내가 학부 시절 기회를 가졌었던 국제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경험한 것들을 다른 사람을 베풀기 위해 쓰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굿네이버스라는 사회복지 국제구호단체를 알게 되었고, 비록 사회복지사는 아니었지만 대학교 1학년 때 잠시 공부한 사회사업학에 대한 경험 그리고 경영전공을 통해 온 좋게도 직원공채에 합격해서 모금활동가로서 나의 첫 직장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상준**: 경영학을 전공하셨군요. 그럼 굿네이버스 직원으로 일하면서 간호에

대한 생각을 하시게 된 건가요?

**김현진**: 네, 4학년 2학기를 마치고 굿네이버스 신입직원으로서 정신 없이 연말 결산 이동 돕기 모금함을 들고 서울역 광장을 뛰어다니는 것으로 나의 사회생활은 시작되었습니다. 월급쟁이로서가 아닌 일에 대한 사명감과, 이름처럼 국경을 넘나드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푹 빠진 굿네이버스 직원들 모두가 나의 존경의 대상이었지요. 지속 가능한 나눔 실천과, 이를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을 개척해 나아가는데 열정을 쏟아내는 사람들과 함께 나도 신입직원 티를 풀풀 내어가며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면서 저는 몇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를 더욱 심도 있게 공부해가며 진정한 NGO 활동가로 꿈을 키우는 것, 그리고 비록 새로운 분야이지만 나만의 전문성을 가진 일로서 자리를 잡고 섬김에 대한 나의 비전도 실천 할 수 있는 간호학 공부의 길을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굿네이버스에 있으면서 배운 복지와 국제 구호의 이슈 안에서는 항상 '보건'에 관한 부분이 담겨있었으며, 고령화 사회, 의료산업의 발달 등과 맞물려 관련 인력도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NGO 활동가로서의 진로 문제를 고민하며 좀더 다른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NGO에서의 일은 열정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열정과 도전정신의 중요성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실무세계는 참 냉철하고 섬김과 봉사에 대한 100가지 마음보다 1가지 구체적인 합리적인 실행능력이 필요하

다고 느꼈구요. 실행능력보다는 마음이 지나치게 앞선 저는, 그 실력을 키우는 것에 대한 계획의 꿈을 결국 접고 직장 생활을 반년을 조금 넘긴 시점에서 사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호대 편입공부를 시작하기에 이르렀죠. 새로운 공부에 대해 의지가 다져짐과 동시에 갈수록 심해지는 취업난 속에서 내민 1년차 직원의 사직서는 간호대 편입공부에 대한 마음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상준**: 남자 간호사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간호대의 선택이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김현진**: 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의대를 선택하지 않았냐고 묻곤 했지요. 저에게 그 질문은 왜 더 나은 것을 선택하지 않는 질문과 너무도 같게만 들렸습니다. 지금의 제가 느끼는 의사와 간호사의 관계는 설명하기에 참 복잡한 관계입니다. 짧게나마 간호학 공부를 하

며 느낀 것은 각각의 전문성이 있으며, 의사 혹은 간호사로서의 매력이 각각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간호대상자인 사람을 전인적으로 돌보고 섬기는 '간호사'의 일 자체에 매력을 느꼈고, 특히 남자간호사로서 할 수 있는 많은 것에 대한 가능성을 알고 도전했습니다. 또한 갈수록 의료 인력의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비록 나이 서른에 졸업하더라도 적어도 취업걱정은 하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나의 선택에 힘을 실어주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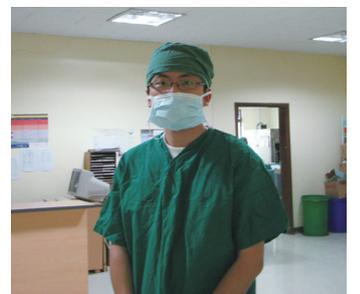
**오상준**: 편입 후 간호대 생활은 어땠나요? 또 앞으로의 비전은 어떤 것인가요?

**김현진**: 대학원도 아닌 학부생으로서 간호대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제 막 취업하고 자리 잡아가는 친구들을 볼 때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까지 오면서 내린 수많은 결정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만족하는 법을 배웠고, 설령 더 나은 선택이 있었는데 이루지

못했다 하더라도 후회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교훈으로 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문과인 제게 간호학과에서 배우는 화학이나 생물과목이 결코 쉽진 않았지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제 꿈을 위한 과정이니까요. 제 마음은 이미 세계를 누비는 국제간호사의 어느 한 순간에 놓여있기에 이 과정이 즐겁습니다.

**오상준**: 밝은 미소로 진지하게 인터뷰에 응해준 김현진 학생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김현진 학생의 멋진 꿈이 꼭 이뤄지기를 바라고 꿈을 향한 그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학생활동 04

동아리탐방-다소니



간호대에는 어떤 동아리가 있을까? 간호대를 대표하는 동아리 "다소니"에 대해 정예슬 다소니 회장을

통해 알아보았다.

**Q**: "다소니"는 어떤 동아리인가요?

다소니는 2006년 1월, 간호대학 학생들이 만든 최초의 간호대 봉사 동아리입니다. 순 우리말로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는 예쁜 뜻을 담고 있는 동아리죠. 지금까지 다소니를 거쳐간 학생은 총 36명이고 현재 학부 1~4학년으로 구성된 총 25명의 학생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학생들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다소니 가족 중에는 멋진 남학생도 4명 있답니다.

또한 본교 2학년 류소인(간호대의대 가톨릭학생회), 김예슬(다소니) 학생이 2010년도 봉사활동 우수 학생으로 선정되어 총장상을 수상하였습니다.

**Q**: "다소니"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다소니에서는 주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건강교

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2주에 한차례 어르신들이 계시는 복지관을 방문하여 기본적 인 손, 발, 귀 위생관리법과 함께 그 달에 주의해야 할 건강문제에 대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이 끝나면 등록하신 순번대로 혈압과 혈당을 검사해드리며, 다소니에서 제작한 건강수첩에 기록하여 건강상태의 변화나 관리에 대해 평가해드립니다. 필요한 경우 기본적인 건강관리법을 상담해드리고 있고요.

또한 정기적인 봉사활동 이외에도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여러 학생들과 다양한 봉사활동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참여가 한 사람들이 모여서 소규모 봉사활동 (여성장애인 가정방문봉사, 태안봉사 활동 등)을 합니다.

**Q**: 어르신들에게 교육을 하는데 어려움은 없었나요?

어르신들이 가끔 교육 내용을 이해 못하시거나 귀가 어두워 잘 듣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런 경우 교육 보다는 노인센터에 있는 목욕탕을 이용하여 교육한 손, 발, 귀 관리법을 직접 보여드립니다. 몸이 불편하시거나 잘 모르셔서 그 동안 관리를 못하신 어르신들의 손, 발, 귀 관리를 해드리기도 하고요. 가능한 어르신들의 눈 높이에 맞춘 건강교육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Q: 많은 동아리 중 “다소니”에 들어오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처음엔 그냥 다른 동아리에 비해 친구들, 선배들이 많다는 이유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소니”에는 친목 뿐 아니라 더 소중한 것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주 뵙지는 못하지만, 항상 저희를 기다려주시는 어르신들과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고맙다고 말씀해주는 분들.. 학교 밖에서도 소중한 인연을 많이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습에 지치고 시험때문에 힘들어도 동아리 활동을 멈출 수가 없네요.

**Q: 봉사활동을 하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이야기해주세요.**

작년 12월, 한 해동안 배웠던 내용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OX퀴즈 대회를 했습니다. 움직이기도 불편하시고 퀴즈대회라는 것이 생소해서서 참여율이 저조할 줄 알았는데, 예상외로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한 문제, 한 문제 정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문제를 푸시는 모

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그 동안 가르쳐드렸던 교육 내용을 잊지 않고 정답을 잘 맞추셨기 때문에 더 뿌듯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준비한 퀴즈대회 상품을 하나씩 들고 가시면서 앞으로도 좋은 교육 부탁한다고 말씀하시던 어르신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Q: “다소니”의 앞으로 계획은?**

일단은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현재 매달 40분 정도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는데요. 아직 다소니를 모르고 계시는 어르신들께 다소니를 알리고 싶습니다. 또, 지금하고 있는 교육내용을 업데이트, 위생교육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시는 건강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만성질환에 대한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교육내용을 추가할 것입니다. 서울노인복지센터 외에 다른 곳에서의 봉사활동도 생각 중입니다. 다른 복지관이나 쪽방진료 등 건강교육과 위생관리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다소니도 함께 활동할 계획입니다. 좋은 봉사프로그램에 더 많은 학생들이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Q: 다른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 소감에 대해 들어보고 싶습니다. 다소니 활동을 통해 특별히 느낀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 김재훈 간호대 07학번  
처음 봉사활동을 하러 서울노인복지센터에 갔을 때 과연 내가 어르신들께 무엇을 해드려야 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조그마한 나의 행동에도 고마워하시고 좋아하시는 어르신을 보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봉사활동을 하면서 나에게도 긍정적인 피드백이 주어질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봉사활동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아리에서 얻은 경험을 통해 살아가면서 기회가 되면 봉사활동을 계속하면서 살아갈 것 입니다.

- 고은영 간호대 08학번  
봉사활동 동아리는 처음이었는데, 정기적으로 그리고 조금은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점에서 동아리를 지속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르신들과 소통하고, 그분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실천함으로써 얻게 되는 보람과 따뜻한 마음을 다소니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단사진은 다소니 동아리 참여학생.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의 발전을 위한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간 : 2009년 1월 1일~2010년 8월 20일

**학사동문**

간호대 59년졸업생일동(1959)  
간호대학 75학번 동교회  
강경자(1993)  
고 영(1997)  
권미경(1984)  
권영숙(1978)  
김금순(1972)  
김복순(1955)  
김영아(1988)  
김정희(1955)

김철규(1993)  
김현영(1990)  
김홍수(1995)  
김화중(1967)  
김희진(1991)  
박성애(1970)  
박승미(1994)  
박영숙(1969)  
서민희(2002)  
윤계숙(1977)  
윤순녕(1973)

이기섭(이예림 09 학부모)  
이명선(1975)  
이애란(1980)  
이애주(1969)  
이윤경(1969)  
이지윤(1993)  
정현명(1992)  
조결자(1966)  
조동란(1970)  
조미경(1994)  
조원자(1960)

최명애(1970)  
최윤경(1995)  
하양숙(1970)  
한경자(1967)  
홍경자(1966)  
**대학원**  
김금자(2010)  
김은성(2009)  
윤은경(2008)  
이미라(2005)  
홍선우(2009)

**최고관리자과정**

제6기최고간호관리자과정정수료생  
최고간호관리자과정

**기타**

Shake Ketefian(University of Michigan)  
정복남(대학로 “정이가네”)  
(주)신한은행

College of Nur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간호대학 발전기금 문의처 : 02-740-8802